정치권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인선 긍정적

與 "지역화합 기여" 野 "지역불균형 해소"

여야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감사원장을 후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과 관련, '화합형 인선'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법조계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도 소임을 잘해낸 분으로 신망과 능력을 고루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흠집내기식 정치공세 등은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야권에게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인준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남 출신의 최초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동서화합과 국민통합형 인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역 편중인사·및 지역 불균형인사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역안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총리직에 맞는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은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병역 기피' 및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벼르고 있어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무총리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청문안 도착일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함에 따라 국회는 또다시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김황식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특위 구성은 여당 7명(위원장 포함), 야당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던 지난달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의 전례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이 대통령은 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서류 등이 첨부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요청안이 넘어오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석 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국정감사 직전인 9월말이나 10월초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접촉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구성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완료된다.

인준안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대의원 표심 잡아라"

민주 당권주자들, 호남發 민심 수도권 등 타지역 확산 예상

손학규·박주선·정동영·천정배 등 연휴기간 공략

"광주·전남 표심을 잡아야 당권을 잡는다"

10·3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광주·전남 구애가 치열하다.

당권주자들은 우선 17일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부분 16일 화순으로 이동, 전남지역 대의원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전남에 대한 애정을 담은 연설문 작성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주자들은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광주·전남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광주·전남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은 민주당의 본산일 뿐 아니라 민주당심의 진앙이기 때문. 특히 추석연휴기간 동안 출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광주·전남의 민심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각 캠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후보는 손학규 전 대표. 그는 추석 연휴를 모두 광주·전남에 할애, 전당대회 중반 승기를 거머쥔다는 각오다. 손 전 대표는 오는 19일 광주를 방문한 이래, 22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방송토론회가 열리는 20일에만 잠시 상경했다가 바로 다시 내려올 예정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공장을 방문, 근로자들을 위로·격려하고 추수를 하는 농촌현장도 들러볼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방문하는 등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짬을 내서 대의원과 직접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박주선 의원은 21일 광주를 방문한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에게 인사를 한 뒤 곧바로 광주로 내려가 불우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추석 당일인 22일에는 서울에 올라가 차례를 지낸 뒤 임진각으로 가서 실향민을 위로하고 23일에는 방송토론회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우선 19일 전주를 방문, 선영을 둘러본 후 서울로 올라가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이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취약지역을 돌며 대의원과 접촉하기로 했다. 정 고문 측 관계자는 16일 "광주·전남지역 조직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포가 고향인 천정배 의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수도권을 돌지, 호남을 방문할지 고민 중"이라며 "하지만 명절을 맞아 고향 쪽으로 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캠프 전체회의를 열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세균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호남 방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21일 추석 당일 경기도 일산의 형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대부분의 연휴 기간을 수도권 대의원과 접촉하면서 보낼 계획이다. 또 시도당 대의원대회 일정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한 중요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인사를 나누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8명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행동하지 않는 공정은 불공정"

전병헌 "야당대표 협박이 공정기준이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6일 청와대 윤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 시설 공사 발주와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의혹과 관련, "참 황당한 사건이며 권력누수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공정사회를 부르짖지만 이런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군에서도 해병대 사령관 부하가 사령관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친절히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며 "행동하지 않는 공정은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비판을 막으려는 권력이 성공한 적은 없고 국민을 이긴 정권도 없다"며 "비판세력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각료 인사청문회에 관한 박 대표의 발언을 여권이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야당 대표의 문제 제기를 공갈 협박, 우격다짐 식으로 막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신 공정기준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예산 잘못 사용"

민주, 이만의 장관 질타

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사흘째 결산심사에서 4대강 사업의 주무장관인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환경부의 4대강 홍보비 증가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 아니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장관은 "4대강 유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시켜드려야 한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이 질의 도중 이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는데 웃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을 해서…"라고 물러서지 않았고, 이에 다시 최 의원이 "장관이 되고 사정이 바뀌었느냐. 예전에 알던 이만의씨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최재성·이인영 누가 살아 남나

빅3·박주선 당선권… 한자리 놓고 486 혈투

민주당 486그룹의 단일화 실패로 최재성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이 동시에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이들의 지도부 동반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예상을 깨고 예비경선을 동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전체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조배숙 의원은 순위와 상관없이 이미 최고위원 당선이 확정된 상태여서 지도부 나머지 5자리(당 대표+최고위원 4명)를 놓고 7명이 경쟁하고 있다. 2명만 탈락하는 비교적 손쉬운 게임이다.

이들 중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와 박주선 의원은 무난히 당선권에 들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천정배 의원과 486 주자 2명이 치열한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무산에 따른 표 분산으로 이 전 의원과 최 의원을 동반 진출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파색이 엷은 이 전 의원 측은 486그룹의 단일후보라는 대표성을 등에 업고 특정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득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단일화 불발로 486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는 다소 미지수이다. 더욱이 486 내에서 '성골-진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전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의원 측이 특정계파와 합종연횡을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함에 따라 빅3의 지원도 어렵게 됐다.

정 전 대표의 직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의 경우 일단 정 전 대표 측의 지원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 점이 부메랑이 돼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된다.

당원 여론조사(30% 반영)도 486에겐 걸림돌이다. 인지도 면에서 천 의원에게 뒤지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16일 "486에겐 두 명이 동시에 지도부에 진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천정배 의원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이란?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기관이 **무료 연수원**의 역활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제도

●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의 재직근로자

●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특징
* 각종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전액 정부 지원
노동부의 전액국비지원 하에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신청만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장소 및 시기 교육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실시 가능
* 재직근로자의 업무향상기대
중소기업의 임직원 능력개발 기회부여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정적 인력관리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자기개발을 통한 성취감 증대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문의 062) 380-8403~6 / Fax 062) 380-8443

– 교육훈련과정 –

연번	훈련 과정명	훈련 방법	훈련 일수	훈련 시간
1	웹기획&디자인	집체	5	20
2	편집출판디자인	집체	5	20
3	시각디자인	집체	5	20
4	네트워크보안실무	집체	5	20
5	Oracle 10g	집체	10	30
6	Java웹프로젝트과정	집체	5	20
7	Frame Work개발과정	집체	5	20
8	임베디드 · 안드로이드 과정	집체	5	20
9	USN System개발	집체	5	20
10	LabView과정	집체	5	20
11	제품디자인	집체+현장	5	20
12	3차원설계및 치수검사	집체+현장	5	20
13	실무자를 위한 고급 Excel	집체	5	20
14	DFSS	집체	5	20
15	ERP회계모듈	집체	5	20
16	ERP물류모듈	집체	5	20
17	PM양성과정	집체	5	20
18	전략기획	집체	5	20
합 계		18개 과정		

• 주관 :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 •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속촌(주) 무진주

갈비전문점 민속촌(주)와 보쌈전문점 무진주는 2011년 3월 1일 광주 상무점 개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본사관리자(경영지원부) 및 영업(써빙), 조리부 경력자와 신입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직무	연 봉	자 격	특별 우대조건
본 사/경영지원부	인 사, 교 육, 구 매, 총 무, 경 리, 홍 보 마케팅, 주차관리부분	면접후 결정	해당분야 경력자(업종불문) 및 초보자는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자 (전공불문) •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 기타 근무경력 모두 경력 가산점 인정) • 2년제 이상 대학 외식산업관련학과(외식경영학, 호텔조리학, 조리학, 식품영양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기타)졸업자 •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소지자 우대
영업장/경영부서	점 장	연봉 3천만원 이상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등 업종불문)	
	부 점 장	연봉 2천만원 이상		
	중 간 관 리 자			
	영 업 장 써 빙 직 원	연봉 1천 9만원 이상	초보자 및 경력자	
	아 르 바 이 트	면접 후 결정		
조리부/생산부서	조 리 관 리 자 (주방장, 부주방장)	연봉 2천 6백만원 이상	조리사자격증 소유자로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찬모, 밥모, 육부, 탕 냉면, 세척직원	면접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1차 : 서류 접수 기간 : 2010년 9월15일 (수) 17시 까지 • 전형방법 : 1차 -e메일로 만 접수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전공 및 주특기 소개 필수), 연락처기재, 지원부서 (희망연봉 기재)
2차 : 면접 전형 (1차 이메일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영업장 써빙(홀 직원)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이력서만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문의 및 e-메일 접수 : focham@naver.com 문의전화 : 011-9766-3392
(이메일 사용법을 모르는 분만 전화로 상담합니다)

돼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73-2
보쌈 족발 전문점 무진주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1-4